12개산업 환경조사“ 착수"

석유화학 · 염색 등 95년 완료 … 환경규제 기준 근거

상공자원부는 환경문제와 관련이 많은 철강 · 염색 등 12개 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,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환경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업비전을 제시키로 했다.
상공부는 전력 · 정유 · 가스 · 철강 · 비철금속 · 석유화학 · 전기전자 · 자동차 · 시멘트 · 펄프 및 제지 · 염색 · 피혁 등 12개 산업을 조사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1차로 11월부터 전력 · 철강 · 염색 등 3개 업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, 94년 6월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3개 업종을 3회로 나누어 95년말까지 12개 업종 전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.
상공부와 전경련, 업종별 관련단체 및 환경관련 전문가로 1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게 될 이 조사에서는 환경오염 유발실태, 환경설비 및 투자현황, 환경관리 조직및 인력 등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 진단하고 점차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준과 투자능력을 평가 분석한다.
상공부는 이 조사를 토대로 산업별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투자규모를 추정하고 기술개발과제를 발국, 국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방침이다.
또 각종 국제환경 규제가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국제환경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환경설비 장기수요 예측과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.

<화학저널 1993/11/15 22>